

# 어시장 경매사 용품



현대 | 149.5×68.2cm 등 |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| 2014년 이주학 기증

10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1980~1990년대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사 용품을 선정하였다.

경매사가 입었던 상의에는 ‘부산공동어시장’, 모자에는 ‘경매사’라고 자수가 놓여있다. 종은 경매 시작을 알리기 위해 경매사가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도구로 손으로 잡기 쉽도록 손잡이가 긴 형태이다. 그리고 ‘요구’라 불리는 갈고리는 경매 중에 중·도매인들과 관련 상인들에게 상자에 담긴 선어(鮮魚)의 품종과 신선도 등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. 이 경매사 용품들은 부산공동어시장 이주학 前사장이 수산물의 유통과정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활용해 달라며 2014년 국립해양박물관에 기증한 자료들이다.

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며 어시장 상인·경매사, 어민, 선원, 항만노동자 등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의 삶을 전시에 담을 예정이다.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각종 어업도구, 선원들의 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는다.

##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



##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

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 
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 
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.



### 기증대상

해양사, 해양교류(해운·항만), 해양예술, 해양민속, 해양과학,  
해양산업, 각종 어업·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



### 기증문의

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-200-5232